

10이란 숫자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 있습니다. 열 처녀 비유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열 드라마 중에 한 드라마를 잃어버리고 낙심한 여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3과 완전을 나타내는 7의 합산인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너무 중요한 숫자임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어 중에 이렇듯 중요한 10을 상징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외로 가장 작은 단어인 요드(י)입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중국교포부가 설립된 지 10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중국교포부 설립 10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교회를 섬겨 오신 중국교포부 모든 분과 지도자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과 함께 행복한 교회를 일구어 오신 모든 성도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중국교포부 설립 10주년을 통해 보면서, 이후에 펼쳐질 더 벅찬 미래를 기대하게 됩니다.

중국교포부!
그대들의 함께 함이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입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040 中文 (347)965-0343 Fax (718)358-7789 http://www.kapcq.org

원로목사 장영춘	담임목사 김성국
부목사 김도현/OPEM (347)450-7736	김재형 (347)761-7663 오인수 (267)205-1295
전도목사 이신은 (646)220-8324	다민족선교사 송요한 (917)940-0596
전도사 고부영/1교구 (917)423-5298 황혜옥/중국교포, 중국어부 (718)825-6969	계화자/2교구 (646)641-8944 이양미/3교구 (516)717-8720 함미희/4교구 (917)359-2857
소유영/행정 (917)318-7030	천위지/중국어부 (347)965-0343 진기웅/OPEM대학부 (201)835-3166
교육전도사 이명옥/영어부 (646)327-6438 차평화/중등부 (703)819-8785	강지영/유아부 (718)801-2339 배인규/청년부 (917)736-3429 최진식/ (646)887-7419
정진규/관리 (646)651-7255	손요한/총회4부 (646)789-1118
직원 장다/중국어부 (929)204-6868	
찬양대 정진규/관리 (646)651-7255	홍현숙/서무 (201)759-0820 Shen de Guia/OPEM
1부 예배 / 임마누엘 찬양대	2부 예배 / 호산나 찬양대
지휘 / 소유영	지휘 / 최진식
반주 / 최미희 이승은	반주 / 송소영
	3부 예배 / 시온 찬양대
	지휘 / 윤원상
	반주 / 윤원주
	4부 예배 /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 / 최경희
	반주 / 김정윤 임세현



주후 2017년 10월 8일
제 43-41호

주일예배

1부 / 오전 8:30 김재형 목사
2부 / 오전 10:30 오인수 목사
3부 / 오후 12:15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 예배선언 CALL TO WORSHIP		사회자
* 참회와 경배 CONFESSION & ADORATION		다같이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HYMN	70	1,3부 / 다같이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2,4부 /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1부 / 정길표 장로 2부 / 송동용 장로 3부 / 황인섭 장로 4부 / 황주현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출애굽기 8:1-32	사회자
찬양 CHORUS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만유의 주께 주는 나의 빛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임마누엘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시온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 SERMON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김성국 목사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359	다같이
광고 ANNOUNCEMENT		사회자
* 찬송 HYMN	620 / 1절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기도	김성국 목사
* 표는 일어섬		

주일 저녁 예배

중국 교포부 설립 10주년 감사 예배

오후 4:00 (10/8/17)	사회: 윤석현 집사
예배선언	사회자
경배와 찬양	다같이
간증	황보명옥 집사
기도	손요한 전도사
성경봉독	이애령 집사
베드로전서 1:1,4:12	
찬양	찬양대
말씀	홀어진 나그네, 김성국 목사 복음을 전하네, 본향을 향하네
영상	영상방송부
특별순서	교포어린이, 교포청년부, 교포자매들 중국어 예배, 헤리티지콰이어, 중국교포부
광고	사회자
찬송	301 다같이
축도	장영춘 목사

QPEM English Service

12:00pm	Rev. Peter D. Kim
Praise	Congregation
Scripture	Presider
Jeremiah 29:4-14	
Prayer	Dn. Jay Youn
Sermon	Rev. Owen Lee
"A Gospel-Community Loves Their City"	

Богослужение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8:30am	Пастор В.Сон
Хвала	Все вместе
Слово из Библии	сестра Т. Лян
к Рим(Ро.) 12:1-2	
Молитва	брат В. Ан
Проповедь	пастор В. Сон
"Да будет воля Твоя!"	

수요 기도 예배

밀라노 은혜교회 그레이스 앙상블 찬양제

오후 8:00 (10/11/17)	사회: 김성국 목사
예배선언	사회자
찬송	438 다같이
기도	김수산 장로
성경봉독	사회자
요한복음 14:6	
찬양	찬양대
말씀	송영호 목사
유일한 길	
찬송	288 다같이
광고	사회자
찬양 음악회	밀라노 은혜교회 그레이스 앙상블
축도	김성국 목사

中文堂崇拜

早上 9:30/下午 4:00	司会:陈玉捷传道
赞美	会众
经文	司会
太(Mt.) 22:41-46	
证道	常达传道
基督,你认识吗?	

새가족 환영회

제 2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

중국 교포부
설립 10주년 감사 예배
10/8(주) 저녁예배 본당

건축바자회

10/14(토) 오전 8:30-오후 7:00 본 교회

장로 임직 감사 예배

10/29(주) 오후 5:00 본당

교회소식

10월 말씀의 달 -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환영

새로 오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하 친교실에 새가족을 위한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두 초대합니다.

행사 및 모임

10/8(주) 중국 교포부 설립 10주년 감사 예배	10/11(수) 밀라노 은혜교회 그레이스 앙상블 찬양제
10/13(금) 구역 예배	10/14(토) 건축 바자회
10/15(주) 장년 성경 공부 주기도문(VI)	10/16~21(월~토) 가을 새벽 부흥회

알림

- 중국 교포부 설립 10주년 감사 예배를 오늘 10/8(주) 저녁 예배 시간에 온 성도와 함께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주위의 중국 교포들을 초청하여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QPEM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6~9(금~월)
- 밀라노 은혜교회 그레이스 앙상블 찬양제가 수요기도 예배 시간 (10/11)에 있습니다. 현재 밀라노에서 활동 중이며 은혜교회를 섬기는 유학생들과 전문 성악가들로 구성된 찬양단입니다. 모든 찬양대원, 합창단원, 경배와 찬양팀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바자회가 10/14(토)에 오전 8:30-오후 7:00까지 있습니다. 깨끗한 헌옷을 기부 받습니다. 주부 간지 주문서를 활용하시어 주문하시면 정성스럽게 배달해 드립니다.
- 학습, 유아세례, 입교, 세례 교육 안내 1) 기간: (10/15)부터 5주간 2) 문의: 각 교구장 3) 장소: 2부 예배 후(오전 11:45) 210호(학습), 213호(세례) 4부 예배 후(오후 3:15) 303호(학습), 305호(세례) 중 택일
- 가을 새벽 부흥회가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으나' 라는 주제로 10/16~21(월~토) 오전 5:45에 시작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꼭 참여하시고 차편이 필요하신 분은 각 교구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로 임직 감사 예배가 10/29(주) 오후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We are that Dream 장학생 선발 안내 교회가 다음 세대를 함께 키워가는 공동체로서 음악 및 무용 분야에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발굴하여 장학금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1) 대상: 초등부-청년선교부 2) 신청자격: 등록 후 6개월 이상의 출석 교인 3) 신청기간: 9/24-10/21 4) 예선: 10/28(토) 5) 본선: 11/4(토) 6) 신청및 문의: 교회 웹사이트 7) 문의: 장학 위원회
- 하랑예찬 Junior팀(킨더가든~2학년)을 사랑과 열정으로 지도해 주실 지도교사를 찾습니다. 문의: 강지영 전도사, 이정훈 집사
- 교육부 단기선교 지원을 위한 빈 병과 빈 캔 모으기 안내 각 가정과 교회에서 배출되는 빈 병과 빈 캔을 교회 파킹장에 배치한 수집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10/14(토) 토요일 총동원 새벽 기도회 찬양 담당: 호산나 찬양대 (다음주: 시온 찬양대)
- 가족기부 장학기금 채영주 집사, 채현주 권사, 김종향 집사, 이미선 교우, 김지용 청년, 김지연 청년

새가족

안한나 (에스터 2F11) 손향려 (에스터 2F11, 김 건 - 영아부) 김경자 (안나 2F10)
엄설화 (마리아 2F12) 손정환 (청년선교 3Y2)

교우소식

점심 제공 오늘 점심 식사는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제공합니다.

금식기도자

주 / 조나영 채현주 박상용 이혜정 박지연
월 / 조나영 최지혜 정우영 홍한나 송정향이나 박지연 화 / 조나영 채현주 정민영 홍한나 최지훈
수 / 조나영 이혜연 정민영 송정향 채영주 이나 황현희 박지연 목 / 조나영 이은정 정진웅 이인철 송정향 최재영 최지훈
금 / 조나영 최지혜 이인철 박지연 토 / 차동미 이양미 최지혜

헌금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1부	오전 08:30	본당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15	
	4부	오후 02:00	
	오후	오후 04:00	
	영어	오후 12:00	양순관
	중국어	오전 09:30 오후 04:00	
	러시아어	오전 08: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본당	
수요 기도 예배	수요일 오후 8:00		
새가족 환영 모임	화요일 오후 7:30	친교실	
전도폭발훈련	화요일 오후 7:30	고등부실	
제자, 영성 훈련	목요일 오후 8:00		

영어부	1부 주일 오전 10:30 2부 주일 오후 12:15	영어부실(지하)
유아부		유아부실(2층)
유치부		유치부실(2층)
유년부		유년부실(4층)
초등부		초등부실(3층)
중등부	주일 오전 10:30/ 오후 12:15	중등부실(4층)
	토요모임 오전 9:00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오후 12:15	고등부실(3층)
	금요모임 오후 6:30	
청년 대학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유아부실
청년 선교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중등부실

출석

1부 예배	322	러시아어 예배	19	영어부	27	중등부	64
2부 예배	336	청년 선교부	85	유아부	34	고등부	60
3부 예배	332	주일 저녁 예배	270	유치부	26	청년 대학부	42
4부 예배	184	새벽 예배	932	중국어 교육부	19	교회 학교 예배	468
영어 예배	172	수요 기도 예배	236	유년부	109	주일 낮 장년 예배	1754
중국어 예배	304	새가족 환영회	9	초등부	87	주일 낮 총계	2222

10월 봉사의원

책임 장로: 김용생 장로

헌신기도	장봉석 장로	고국환 장로	박영권 장로	허경화 장로
책임권사	남궁혜령 권사	김미건 권사	장광숙 권사	청년부
실내 안내	이정숙 오영자 홍지혁	임승룡 허영미 문인숙 이미셀	김희은 오성태 송현규 김선희 장지숙 정민영	김서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김선의 조한결 신예지 윤국현
헌금 위원	윤영신 심인보 조규옥 윤순자 김정란 차광혁 채송자 강석춘	이지수 허영미 문인숙 임승룡 조인범 김미권	심원희 오성태 고종빈 나인애 김희은 박석미 한원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신예지 조한결 윤국현 박재상 소승우
차량 안내	이영호	김지한	윤지현	박철홍

화요일 새가족 환영: 마르다, 베드로 주일식사: 마리아 (다음주: 브리스가)

파송, 협력 선교사

파송선교사: 알마티퀸즈장로교회 김관중 선교사 / 캄보디아 이일훈 선교사 박수영 선교사

협력선교사: 미주크리스천신문 / 한인세계선교협의회 / 단미미션인터네셔널 / 여운세(캄보디아국제신학교) / 김현(캄보디아국제신학교) / 국제장애인선교회(미국) / 강인중(케냐) / 홍황식(파키스탄) / 김성일(터키) / 박은순(탄자니아) / 박선숙(미국 장애인) / 최득신 (프랑스) / 김명희(미국 할렘) / 지승남(미국 캠퍼스) / 최동훈(케냐)

이번 주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문답 10)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갈 3:10)고 선언하셨습니다.

월 - 사도신경 / 찬송가 539장 / 소요리 문답 / 잠언 29장 1-9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세심하게 그 마음을 알아주고 오해나 억울한 것이 없도록 사랑과 존중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는 자의 주장만 할 뿐이고, 자신이 옳다고만 합니다. 악인에게는 자신 외에 다른 누구를 생각하고 배려할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우리 마음을 풀어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게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화 - 사도신경 / 찬송가 524장 / 소요리 문답 / 잠언 29장 10-18절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길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지혜 자는 “목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나” (18) 말씀합니다. 목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며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꿈과 마음과 소망을 말합니다. 들어야 할 뜻대, 가야 할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시간과 힘을 낭비하고 주저앉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셨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18)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율법을 사랑하고 읽고 힘써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수 - 사도신경 / 찬송가 546장 / 소요리 문답 / 잠언 29장 19-27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길 소원합니다. 지혜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거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25)고 말씀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도 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도 하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렵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이 참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되시사 보호하고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더욱 믿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길에만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목 - 사도신경 / 찬송가 436장 / 소요리 문답 / 잠언 30장 1-10절

아굴의 잠언은 참 솔직하고 현실적이어서 우리에게 공감과 감동을 줍니다. 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8)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9)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시고 주시는 주님께서 이 솔직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정을 다 아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금 - 사도신경 / 찬송가 438장 / 소요리 문답 / 잠언 30장 11-20절

오직 여호와에게만 만족이 있습니다. 거머리는 뭐가 그리 부족하고 배고프고 필요한지 항상 “다오 다오” (15)합니다. 사탄이 사는 스올 또한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구덩이로 떨어뜨리는데 만족함이 없습니다. 물로 채워질 수 없는 이 땅과 만족할 줄 모르고 항상 타오르고 싶어 하는 불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눈 또한 만족함이 없습니다(잠 27:20). 항상 필요로 하고 비교하고 원하고 구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에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고후 3:5)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이 있습니다. 그 만족과 평강이 우리 가정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토 - 사도신경 / 찬송가 499장 / 소요리 문답 / 잠언 30장 21-33절

교만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굴은 스스로 높은체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체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32). 입을 틀어서 막을 정도로 우리는 나 자신이 높아지려는 것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사탄이 바로 이 부분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악을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하고 주와 동행하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